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5년 4월 1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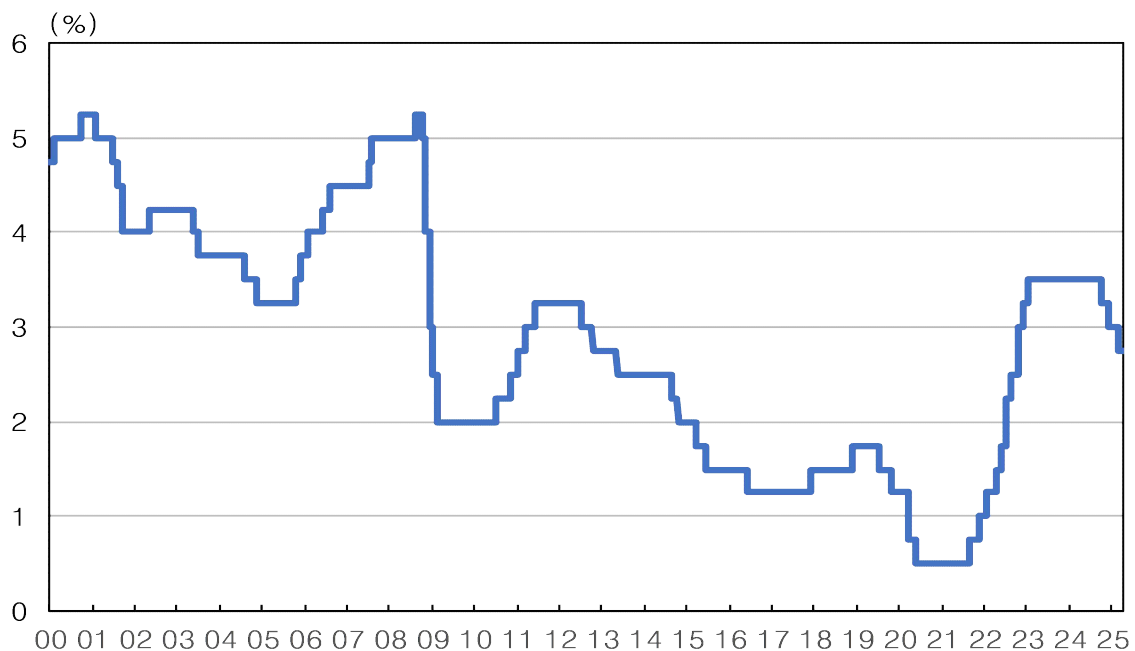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세계경제지표

		2023	2024	24.2/4	3/4	4/4	25.1/4	25.1월	2월	3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9	2.8	3.0	3.1	2.4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3.4	3.1	0.5	1.3	1.8	0.3	-1.2	0.2	1.4
	산업생산 ¹⁾ (전기비, %)	0.2	-0.3	0.6	-0.1	-0.2	1.4	0.3	0.8	-0.3
	ISM제조업 ²⁾ (기준=50)	47.1	48.2	48.5	47.3	48.2	50.1	50.9	50.3	49.0
	실업률 ¹⁾ (%)	3.6	4.0	4.0	4.2	4.1	4.1	4.0	4.1	4.2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334.3	208.1	51.4	33.8	50.9	56.7	11.1	11.7	22.8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1	2.9	3.2	2.6	2.7	2.7	3.0	2.8	2.4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8	3.4	3.4	3.3	3.3	3.1	3.3	3.1	2.8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4	0.9	0.7	1.7	0.9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9	1.2	0.3	1.0	0.4	..	0.0	0.3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6	-3.0	-0.3	-0.3	-0.4	..	0.6	1.1	..
	제조업PMI ²⁾ (기준=50)	45.0	45.9	46.3	45.5	45.4	47.6	46.6	47.6	48.6
	실업률 ¹⁾ (%)	6.6	6.4	6.4	6.3	6.2	..	6.2	6.1	..
	수출 ¹⁾³⁾ (전기비, %)	-0.8	0.5	0.6	-0.8	0.6	..	2.1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5.4	2.4	2.5	2.2	2.2	2.3	2.5	2.3	2.2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9	2.8	2.8	2.8	2.7	2.6	2.7	2.6	2.4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5	0.1	3.2	1.4	2.2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5.7	2.3	1.6	0.8	0.2	..	1.2	0.5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4	-3.0	2.1	0.3	0.4	..	-1.1	2.5	..
	제조업PMI ²⁾ (기준=50)	49.0	49.1	50.0	49.5	49.3	48.7	48.7	49.0	48.4
	수출 ¹⁾ (전기비, %)	2.8	6.0	2.9	0.7	1.5	..	-1.3	4.0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2	2.7	2.7	2.8	2.9	..	4.0	3.7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1.9	1.8	1.6	1.6	..	1.5	1.5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5.4	5.0	4.7	4.6	5.4	5.4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7.2	3.5	2.6	2.7	3.8	5.9	..	4.0	5.9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4.6	5.8	5.9	5.0	5.6	6.8	..	5.9	7.7
	제조업PMI ²⁾ (기준=50)	49.7	49.7	49.8	49.4	50.2	49.9	49.1	50.2	50.5
	수출(전년동기비, %)	-4.7	5.9	5.7	5.9	9.9		6.0	-3.0	12.3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2	0.2	0.3	0.5	0.2	0.1	0.5	0.7	-0.1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0	-2.2	-1.6	-1.8	-2.6	-2.3	-2.3	-2.2	-2.5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1.9	1.1	0.5	1.9	2.5	..	7.2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일부 반등하였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급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3	24.11월	12월	25.1월	224일	3월	4.16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25	4.15	4.24	4.20	4.17	3.88	3.77
	미국(10년물)	3.88	4.17	4.57	4.54	4.40	4.21	4.28
	독일(10년물)	2.02	2.09	2.37	2.46	2.48	2.74	2.51
	영국(10년물)	3.54	4.24	4.57	4.54	4.56	4.68	4.60
환율 ¹⁾	달러인덱스	101.3	105.7	108.5	108.4	106.6	104.2	99.4
	신흥시장국 ²⁾	48.1	43.7	42.8	43.5	44.4	44.6	44.7
	엔/달러	141.0	149.8	157.2	155.2	149.7	150.0	141.9
	위안/달러	7.11	7.24	7.30	7.24	7.25	7.25	7.30
주가 ¹⁾³⁾	전세계	727.0	862.5	841.3	869.0	870.6	827.2	791.1
	선진국	3169.2	3810.1	3707.8	3836.6	3828.2	3628.6	3468.5
	신흥시장국	1023.7	1078.6	1075.5	1093.4	1135.7	1101.4	1059.1
VIX ¹⁾		12.5	13.5	17.4	16.4	19.0	22.3	32.6
CDS프리미엄 ¹⁾ (bp)	신흥시장국	167.5	156.5	172.5	160.1	155.5	184.5	212.0
	중국	59.6	64.5	66.0	56.5	45.7	52.0	68.9
	한국	27.2	34.0	37.8	32.9	29.0	38.7	36.4
유가 ¹⁾⁴⁾ (달러/배럴)	WTI	71.7	68.7	71.7	72.5	70.7	71.5	62.5
	Brent	77.6	74.3	74.1	76.9	74.7	77.2	67.6
	Dubai	76.5	72.0	75.1	75.5	74.4	73.6	66.1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7.8	-219.3	-67.9	-7.9	-117.5 ⁵⁾	40.2	230.2 ⁶⁾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MSCI 기준

4) 현물 기준

5) 25.1.30~25.2.19일 기준

6) 25.4.3~25.4.9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났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3	2024	24.2/4	3/4	4/4	25.1/4	25.1월	2월	3월
GDP 성장률 ¹⁾	1.4	2.0	-0.2	0.1	0.1	..	-	-	-
(민간소비)	1.8	1.1	-0.2	0.5	0.2	..	-	-	-
(설비투자)	1.1	1.6	-1.2	6.5	1.2	..	-	-	-
(건설투자)	1.5	-3.0	-1.7	-3.6	-4.5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1.3	-2.1	-0.3	0.7	-0.4	..	-0.7	1.5	..
설비투자지수 ²⁾	-4.8	2.9	-1.4	10.2	-1.8	..	-15.7	18.7	..
건설기성액 ²⁾	7.8	-4.7	-8.2	-3.8	-5.1	..	-4.6	1.5	..
수출(통관) ³⁾	-7.5	8.1	10.1	10.5	4.2	-2.1	-10.1	0.7	3.1
- 일평균 ³⁾	(-6.8)	(8.1)	(10.9)	(10.5)	(2.7)	(2.5)	7.9	-6.1	5.5
제조업생산지수 ²⁾	-2.6	4.2	1.8	-0.8	2.1	..	-3.0	0.8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3.4	1.1	0.0	-0.3	0.7	..	-0.9	0.5	..
소비자심리지수 ⁴⁾	97.4	100.0	100.0	101.5	96.9	93.3	91.2	95.2	93.4
기업심리지수 ⁴⁾⁵⁾	90.5	92.8	95.4	93.4	90.3	90.3	89.0	90.1	91.9
취업자수 증감 ³⁾⁴⁾	32.7	15.9	14.6	14.6	5.2	15.5	13.5	13.6	19.3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6	62.7	62.8	62.7	62.5	63.0	62.9	63.0	63.0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7	2.8	2.8	2.5	3.0	2.8	2.9	2.7	2.9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실적 CBSI 기준

[물 가]

- 국내 물가는 3월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7%)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3	2024	24.2/4	3/4	4/4	25.1/4	25.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¹⁾	3.6	2.3	2.7	2.1	1.6	2.1	2.2	2.0	2.1
-	-	-	(0.3)	(0.4)	(0.2)	(1.2)	(0.7)	(0.3)	(0.2)
▪ 농축수산물	3.1	5.9	8.6	3.4	1.6	1.2	1.9	1.0	0.9
▪ 공업제품	2.6	1.5	2.1	1.4	0.6	2.0	2.2	2.0	1.7
(석유류)	-11.1	-1.1	2.9	0.0	-5.2	5.4	7.3	6.3	2.8
(석유류 제외)	4.8	1.9	2.0	1.6	1.4	1.5	1.6	1.5	1.6
▪ 전기·수도·가스	20.2	3.5	3.1	2.4	3.0	3.1	3.1	3.1	3.1
▪ 서비스	3.3	2.2	2.2	2.2	2.1	2.2	2.3	2.1	2.3
(공공서비스)	1.3	1.7	2.2	1.5	0.9	1.0	0.8	0.8	1.4
(개인서비스)	4.8	3.0	2.8	3.0	2.9	3.1	3.2	3.0	3.1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4	2.2	2.2	2.1	1.8	1.9	1.9	1.8	1.9
(관리물가 ²⁾ 제외)	3.9	2.1	2.1	2.1	1.9	1.9	2.0	1.8	1.8
▪ 농산물·석유류 제외	4.0	2.1	2.1	2.0	1.8	2.0	2.0	1.9	2.1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5	3.0	3.1	2.9	2.8	2.7	2.8	2.7	2.7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정책 및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받으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 후 일부 반등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상당폭 낮아졌다.

국내금융지표

	2023	24.11월	12월	25.1월	2.24일	3월	4.16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15	2.61	2.60	2.57	2.61	2.57	2.35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18	2.75	2.86	2.86	2.83	2.77	2.63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48	2.98	2.96	2.87	2.84	2.65	2.50
CP금리 ¹⁾²⁾ (91일물, %)	4.32	3.39	3.58	3.25	3.19	3.00	2.93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89	3.20	3.28	3.17	3.19	3.12	2.91
(3년, BBB-, %)	10.33	9.00	9.05	8.96	8.96	8.90	8.67
KOSPI ¹⁾	2655.3	2455.9	2399.5	2517.4	2645.3	2481.1	2447.4
원/달러 환율 ¹⁾	1288.0	1394.7	1472.5	1452.7	1427.4	1472.9	1426.7
원/100엔 환율 ¹⁾	912.3	929.5	948.8	939.0	955.2	989.7	1,002.1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4.5	-2.3	-1.5	-1.3 ⁴⁾	-2.2	-10.2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5.2.1~25.2.24일 기준 5) 25.4.1~25.4.16일 기준

-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가격 오름세 및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되었다.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3	2024	24.2/4	3/4	4/4	25.1/4	25.1월	2월	3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77.4	67.4	24.1	19.4	-1.1	9.2	7.8	3.5	-2.1
▪ 대기업	31.9	26.7	8.3	7.1	-1.2	5.7	6.1	0.4	-0.7
▪ 중소기업	45.5	40.6	15.9	12.2	0.1	3.5	1.8	3.1	-1.4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36.9	46.0	16.9	20.2	5.3	4.1	-0.5	3.2	1.4
▪ 주택담보대출 ¹⁾	51.6	52.1	16.4	19.8	5.8	7.3	1.7	3.4	2.2
▪ 기타대출 ²⁾	-14.5	-5.9	0.5	0.5	-0.4	-3.2	-2.1	-0.2	-0.9
주택 매매가격 ³⁾ (%)	-3.6	0.1	-0.0	0.6	0.0	-0.1	-0.1	-0.1	0.0
▪ 수도권 ³⁾⁴⁾	-3.6	1.4	0.2	1.3	0.3	0.1	-0.1	-0.0	0.2
(서울) ³⁾	-2.0	3.2	0.6	2.1	0.6	0.7	0.0	0.2	0.5
▪ 지방 ³⁾⁵⁾	-3.5	-1.0	-0.2	-0.2	-0.3	-0.4	-0.1	-0.1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별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